

이러한 소명과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토대로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을 찾고 그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관, 경제관, 과학관, 교육관 등 각 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하면서 각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타 세계관들이 각각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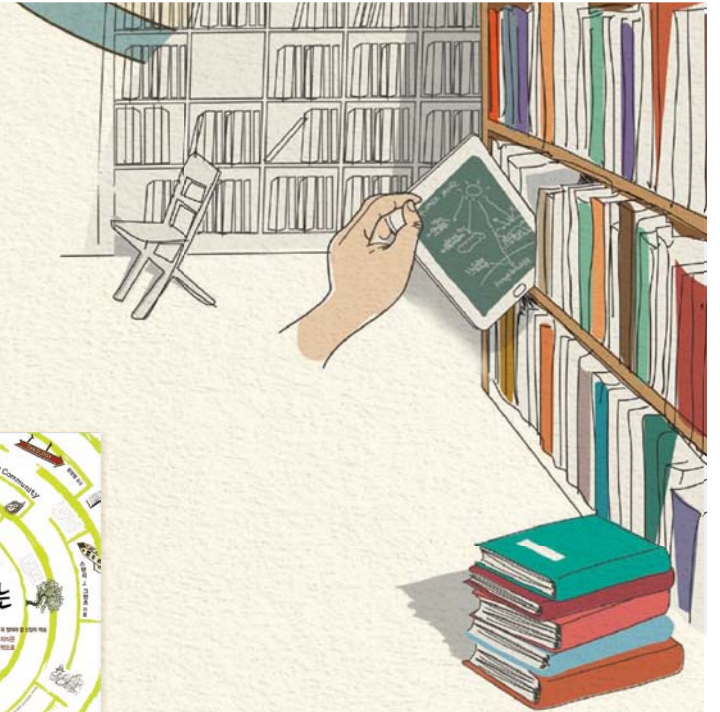
요컨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다음세대가 기독교적 사고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상 속에서도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은 타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는 사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의 교육내용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3년 6학기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안)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학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 (worldview)	1.1 기독교세계관 1.2 기독교적 사고훈련
2학기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 (spirituality)	2.1 기독교적 영성관 2.2 기독교세계관과 삶(친구, 이성교제, 공부, 게임, 성(sex), 음란물, 돈, 시간 등)
3학기	문화를 분별하기 1 (culture)	3.1 기독교적 문화관 3.2 타세계관(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등) 3.3 종교(사머니즘, 불교, 유교 등)
4학기	문화를 분별하기 2 (culture)	4.1 기독교세계관과 문화이슈(동성애, 환생, 낙태, 인간복제, UFO, K-pop 열풍, 쇼 핑크독 등)
5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1 (discipleship)	5.1 기독교적 소명관 & 직업관 5.2 기독교세계관과 인문영역 - 문학, 예술, 경제, 사회, 가정 등
6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2 (discipleship)	6.1 기독교세계관과 자연영역 - 과학과 기술, 환경, 청초와 진화 등 6.2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싱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벤크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선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탠리 그렌츠 저 | 장경철 역 | CUP

스탠리 그렌츠의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을 읽고

☉ 윤성현 목사(고신대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를 염려하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주류적 흐름을 차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는 내세중심적이고 개인경건주의적인 성숙 이원론적 신앙이 여전히 일부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직

성공과 번영의 현세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자리를 옮겨 삶이 결여된 값싼 복음을 열심히 세일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실 이런 파행적인 모습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긴지 오래다. 교회는 세속화의 일로에 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행태는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오직 이기적인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 다반사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신칼빈주의적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퇴조하는 가운데 먼저 등장한 것은 존 하워드 요더(J. H. Yoder)나 스탠리 하우어워즈(S. Hauwerwas)로 대표되는 아나뱃티스트적 교회론에 입각한 새로운 기독교 대안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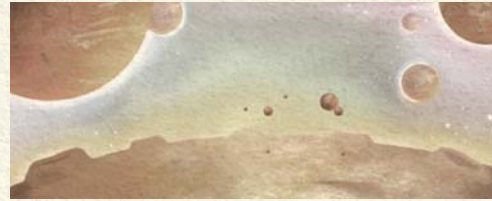
의 도전이다. 아나뱃티스트적 교회론적 대안운동은 공공성의 영역보다는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부재에 대한 대안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함으로써 교회와 세상과의 급격한 대조를 통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저항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안적 움직임은 공공성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세상에 대해 배타적인 성숙 이원론적 신앙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한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교회 중심성을 벗어나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맥스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로 대표되는 이 흐름은 요더 중심의 교회론적 대안운동과는 정반대의 접근으로 과거 신칼빈주의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보여주었던 세상 변혁을 위한 기독교 신앙과 맥을 같이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스탠리 그렌츠의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렌츠가 제시하는 신학은 바로 요더의 교회론적 대안운동과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의 총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렌츠는 성경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화해된 백성이 하나님,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과 사귀를 누리며 사는” 공동체는 하나님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렌츠의 공동체는 하우어워즈의 교회됨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과 화해된 백성, 곧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아울러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를 동시에 꿈꾼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는 전 우주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공동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사회 속에 침투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하여 스택하우스의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신학은 그렌츠의 공동체 신학 속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그는 우주적 공동체의 이상을 발견한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적인 삶의 궁극적 모델과 표준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사회적 삼위일체는 공동체의 원형이시다. 사랑으로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의 사귀를 이루는 공동체의 중심에 두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 자연을 위해 봉사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이상을 상실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 성령은 공동체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며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반영하며 살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 속에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렌츠의 신학은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이다. 그에게 있어 신학은 더 이상 상아탑 속에서 특정한 신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고고한 지적 유희가 아니다. 신학은 신앙과 관련되며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신학자는 더 이상 학문적 능력을 갖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말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세계관에 기초해서 영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렌츠에게 신학은 바로 세계관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제자도와 직결된다.

그렌츠는 제자도의 지적 차원을 의미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신학과 신앙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신학과 신앙의 차이점을 구분했다. 신학은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차원에서 탐구인 반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응답”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의 강조를 발견한다. “신학은 신앙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탐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그래서 신학함에 있어서 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신학으로 신앙을 대체하려는 유희이었다. 신학이란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신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신학은 반드시 참된 경건과 순종하는 제자도로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럼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신문을 다루는 1장과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 신학의 중심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신학은 다분히 신문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공동체 신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비 롯되기 때문이다. 그의 신문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포커스를 맞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역동적 관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철저하게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인간론을 다루는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한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으로 공유되는 실재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사귀 속에서 살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사귀를 위한 존재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자연과의 사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아간다. 그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공동체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 곧 공동체가 되는데 실패한 것을 가리킨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과 분리 가운데 놓여졌다.

기독교론을 다루는 5장과 6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며 동시에 참된 인간의 전형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분으로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생애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의 사림도 나타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로부터 새로운 공동체적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몸인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다.

성령론을 다루는 7장과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설명된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은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오순절을 전환점으로 성령께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위대한 공동체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곧 성령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의 완성자이다. "완성자로서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회개와 신앙으로 회심케 하심으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속으로 편입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간다.

교회론을 다루는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인 공동체의 현재적 현현인 교회, 곧 '개척자 공동체'가 언급된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 속에서 인정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교회의 사명은 한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에 기초하여 이웃,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며 사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먼저 진정한 사림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만 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공동체 안과 밖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종말론을 다루는 11장과 12장에서 그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려낸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현 창조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공동체에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리된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공동체는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림의 갱신이며 현재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의 철저한 완성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하게 드러날 영원한 공동체는 새로워진 창조세계, 곧 새로워진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 완성된 창조세계는 첫 창조세계를 그대로 포함한다. 인간문화 중 최고의 것들도 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가 아닌 갱신과 해방이다." 우리는 완성된 창조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사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그렌츠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공동체 신학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조다. 그는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하며 살아야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한다. 한마디로 그가 말하는 신학은 신앙이요 삶이다.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학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텅 빈 조개껍질 같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의 세계관과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신학의 강조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할 소중한 메시지에 틀림이 없다.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라!



윤성현 목사 개혁신앙 아카데미 총무로 사역 중이며, 합동신학대학원(M. Div.)과 고려신학대학원(기독교 윤리학, S.T.M.)을 졸업하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중에 있다.

2013

제3차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규회원 초청의 날

2013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기독교세계관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회원님들의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을 도서나 <월드뷰>로만 접하신 분들의 갈증을 풀어 드리고자,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준비된 강의들으시고 같은 뜻, 같은 공금증으로 고민하시던 분들과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일시 **2013년 5월 31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용산사무국(용산역 하차, 홈페이지 참고)

*추후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 청년, 인생 최고의 순간

강사 김기현 목사(공격적책읽기), <예배최고의 가치>,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등 저자

사회 최태연 교수(백석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참가비 1만원(당일접수) / 신청 메일 info@worldview.or.kr / 문의 02-754-8004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교회 청년부, 단체 신청받습니다. (전화문의)

2013년 2차 신규회원 초청의 날 후기 :)

지난 3월 14일(목) 저녁 7시 용산 사무국에서 신규회원 초청의 날 두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회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사"를 주제로 귀한 강의를 들려주신 김의원 부이사장(백석대 부총장) "이름없게만 많은 불행이 관습을 거꾸에서 통했습다."



이번 모임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최태연 교수님. 따뜻한 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UP!



평소에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이 많았던 회원님들은 금세 강의에 푹~빠져셨습니다. 김의원 부이사장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쑥스럽지만 즐거운 자기소개와 질의응답 시간~♪ 나누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헤어지기 아쉽지만 모임을 마무리하며 단체 사진 촬영 소령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WORLDVIEW